

대만...

스모그가 짙, 싸우려
카드뮴장식의
장난감보다는 그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아시아의 나라...

...시차에
지친
여행자의
눈에 생기를
불어넣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

타이베이를 향해 나서는 것은 아침 내내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으로 시작하기로 했다.

소위 문화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그리고 나는 거리를 흐르는 파도함에 매료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심지어, 타이베이 청각장애인 학교의 마당에 있는
악마불 모양의 거대한 석고상 손이 내게 친절하게
인사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내가 도착한 유월의 안개 낀 토요일 아침에.

락앤롤.

Seven Hours to Kill

그림: 윤에릭 번의: 레이

그 도시에서...

...나는 탈라피아와 붉은 쌀의 냄새가 거리와 전화선의 정글
공중에서 떠도는 것을 발견했다.

...입에 파란색 마스크를 한
사람들의 무리속으로
몰려들어갔다.

이곳에서는 나의 영어가 소용없었으므로
나는 나의 후각을 따라 걸기로 했다.

대부분의 타이완 사람들은
나에게 시선을 던지는 조취의
작은 성가심도 주지 않았다...

나의 코가 이끈 곳은
질식할 것 같았던 행인
무리에서 떨어진...

...도시의 짙숙한
빈민기였다.

은밀한 그곳 사람들의 속삭임부터
나를 스쳐가는 발걸음 속도의 미묘한
변화까지 모두 난 단지 '미국인
조'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불규칙하게 퍼진 도시의 미로는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깊이 파고들수록 길을 잃게만 했다.

몇 시간만이라도 좀
편직하기 위해 높은 층도에
몰려들어 버린 셔츠의 한
끝을 들어 울려 말했다.

한인 먹거리라도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음 좋게도 작은 노점 상인이
이 문채들 중의 하나를 해결해
주었다. 나는 몸짓으로
그녀에게 내 위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편지를 설명해 보려
했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다.

동이 담은 할머니는 마침내 포기하고 나에게 작은
뭉치를 몇 개 건네 주었다.

뭉치가 들어있는지 파헤쳐 질문으로 그녀를 귀찮게 하지 않았다

블랙커피의 가격이 나를 잠깐
망설이게 했다.

3800원 정도.

나는 점심도
배우면서 운이
좋다면
인터넷에
접속도 할 겸
근처
커피숍으로
대피하여
틀어박히기로
결심했다.


나는 커피값으로
돌아갈 버스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길
내심 바랐다.

미국에서는 명백히 무료
와이파이가 대안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어떤 신호라도 잡기 위해
노력했지만 대만 사람들은
꼼꼼히 차단해 두었다.

나의 커피는 점점 식어갔고,
나는 약간 짜증이 났다.


재밌는 사실: 타이완 도심 대부분의
와이파이 신호는 '왕'자로
시작하거나 끝난다.




내가 그곳에 더 있기를 바랬다면 약간
늦어질 참이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에
올라 탈 적절한 순간이었다.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은 타이페이를
여행하는 것보다 짧게 느껴졌다.

증장비들이 쌓아 올린 철강의 대들보와 그것들을
따라 심심한 열대의 캐노피를 잘라낸 붉은 진흙의
용터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마침내 터미널에 도착하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두
개의 생각이 있었다.



하나는 마닐라에
있는 나의 가족과
몇 분 후에
재회하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가!

나머지 하나는 언젠가 이곳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이었다.

END